뉴스Plus
교육

취업률… 건양대 웃고, 충남대 울었다

그룹별 건양대 전국 1위, 충남대 전국 26위… 대전·충청, 전국 취업률 밑돌아

배다솜 기자 | loose2002@goodmorningcc.com

승인 2014.08.31 21:45:04



▲ 전국 취업률 1위를 차지한 건양대 전경.

[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] 전국 대학 취업률 통계에서 건양대는 그룹 1위, 충남대는 그룹 26위로 나타나는 등 지역대학의 희비가 갈렸다.

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발표한 '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' 결과에 따르면 건양대가 대학·산업대학 다 그룹(졸업자 1000명 미만)에서 74.5%를 전국 1위를 차지했다.

건양대는 2012년 2위, 지난해 3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 1위에 올라섰다.

같은 그룹에서 우송대도 72.8%로 전국 3위에 자리했으며 한발대 61.9%, 중부대 58.9%, 배재대 57.1%, 목원대 56% 순으로 뒤를 이었다.

대학·산업대학 나 그룹(졸업자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)에서는 대전대가 62.2%로 3위의 성적을 올렸으며, 한남대는 52.6%를 기록했다.

반면, 충남대는 대학·산업대학 가 그룹(졸업자 3000명 이상)에서 48.5%로 전체 34개 대학 중 하위권인 26위에 그쳤다.